

6/ 현대 일본사회의 적군 전사자 추도와 내셔널리즘

흥아관음(興亞觀音)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세연



아타미(熱海)의 흥아관음상.
1940년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가 세웠다.

이세연(李世淵) 한양대학교 사학과, 고려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을 거쳐 도쿄대학 종합문화연구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업적으로 『사무라이의 정신세계와 불교』(혜안, 2014), 『제국과 변경』(혜안, 2017), 『술로 풀어보는 일본사』(이상, 2017)가 있다. 최근에는 아이즈, 백호대를 주요 소재로 삼아 기억의 재구성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8-362-B00006).

<https://doi.org/10.291514/ILBI.2018.18.184>

1. 야스쿠니에서 적군(敵軍)을 추도하는 사람들

2011년 12월 23일, 야스쿠니 신사에서 ‘원친평등 순국기 위령제’(怨親平等 殉國忌 慰靈祭)라는 색다른 이름의 종교행사가 거행되었다.¹ 행사의 취지는 다음의 관련 문건²에서 확인된다.

상해파견군 사령관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 대장은 쇼와(昭和) 15년 기원 2600년의 기념에 즈음하여 지나사변에서 전사하신 일지(日支) 양국의 장병을 다같이 ‘원친평등’하게 추도하기 위해 전지의 흙으로 빛는 흥아관음(興亞觀音)을 발원 건립하셨습니다.

이 관음님에는 극동군사법정에 의해 A급 전범이 되어 그 이름하에 쇼와 23년 12월 23일에 처형된 마쓰이 대장을 포함하는 순국칠열사가 잠들어 계시며, 또 필리핀 파견 사령관 혼마 마사하루(本間雅晴) 중장 등 BC급 전범의 오명하에 형사(刑死)하신 1,068주의 어령(御靈)도 받들어져 있습니다.

일중(日中)의 영원한,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고, 순국칠열사의 어령과 더불어 형사하신 1,068주의 어령이 고이 잠드시길 기원하여 ‘원친평등 순국기’ 위령제를 기획했습니다.

뜻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11년 12월 13일

흥아관음(興亞觀音) 봉찬회 회원

원친평등 순국기 발원유지

대표 변호사 우치노 게이치로(内野經一郎)

(일본회의 나카노[中野] 지부장)

1 도쿄도 나카노구의회 의원 우치노 다이자부로(内野大三郎)의 홈페이지 참조, <http://www.daizaburo.jp/archives/716>(최종 검색일: 2017. 10. 25). 위령제를 마친 참가자들은 야스쿠니 회관으로 이동하여 “일본을 되찾자”는 제목의 강연을 청취했다. 연사는 현 ‘일본회의’ 대표위원 겸 도쿄도 본부회장인 가세 히데아키(加瀬英明)였다.

2 ‘일본회의’ 도쿄도 나카노(中野) 지부 홈페이지의 게시물 「怨親平等 殉國忌 慰靈祭へのお誘い」, <http://www.nipponkaigi.jp/archives/58>(최종 검색일: 2017. 9. 21)



〈그림 1〉 왼쪽부터 '대동아전쟁 전몰장사영령보리', '대동아전순국형사 1068령위공양비', '칠사지비'
제공: 데시마 다카히로(手島崇裕) 경희대 교수(이하 같음)

위의 인용문에서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홍아관음은 난징대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처형된 마쓰이 이와네가 1940년 아타미(熱海)에 세운 도제(陶製) 관음상이다. 이 불상에는 실제로 '전지의 흙'이 사용되었다. 마쓰이는 '전지의 흙'과 일본의 흙을 섞어 불상을 빚게 함으로써, 일본군 전사자와 중국군 전사자를 평등하게 추도한다는 뜻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 같은 취지의 홍아관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원친평등은 원수와 근친을 평등하게 인식하고 대한다는 의미의 불교 용어다. 현실세계에서 인지되는 여러 현상이 미망에 불과하다는 불교적 원칙론에서 비롯된 용어지만, 일본사회에서는 중세 이후 적군과 아군의 전사자를 평등하게 추도한다는 의미로 특화되었다.³ 원(수)과 (근)친에 각각 적군과 아군을 대입해보면, 전사자 추도를 원친평등으로 설명해온 이유는 일목요연하다 할 것이다. 마쓰이 역시 살아생전에 원친평등을 자주 사용했다.

그런데 인용문에서 보듯 종교법인 홍아관음 경내에는 1948년 12월 23

3 이세연, 『사무라이의 정신세계와 불교: 일본사회의 전사자공양과 怨親平等』, 혜안, 2014 참조.

일에 처형된 A급 전범 7인의 유골이 안장되어 있다. 요코하마 구보야마(久保山) 화장장에서 몰래 반출된 후 화장장 근처의 고젠지(興禪寺)에 일시 보관되었던 7인의 유골은 1949년 5월 3일 유족들의 합의하에 홍아관음에 안치되었다. 이 사실은 연합군최고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GHQ) 점령기간 내내 은폐되었지만, 1952년 일본의 주권 회복과 더불어 공개되었다. 1959년에는 홍아관음 경내에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휘호의 ‘칠사지비’(七士之碑)가 건립되는데, 7인의 유골은 이 석비 아래에 안장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⁴ 7인의 유골을 품은 ‘칠사지비’ 옆에는 BC급 전범을 추도하는 ‘대동아전순국형사 1068령위공양비’(大東亞戰殉国刑死一〇六八靈位供養碑, 1959년 건립)와 ‘대동아전쟁 전몰장사영령보리’(大東亞戰爭戰歿將士英靈菩提, 1944년 건립)도 있다. 홍아관음이 종종 ‘또 하나의 야스쿠니’⁵ 혹은 ‘작은 야스쿠니 신사’⁶로 일컬어지는 까닭이다.

야스쿠니 신사의 ‘원친평등 순국기 위령제’는 이처럼 두 갈래의 맥락을 지닌 홍아관음을 매개로 기획, 거행되었다. ABC급 전범들에 대한 추도가 한 축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아울러 적군 전사자를 추도하는 행사가 다름 아닌 야스쿠니 신사에서 거행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물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야스쿠니 신사 경내에서 아군과 적군(敵軍) 전사자 혹은 관군과 적군(賊軍) 전사자가 불편한 동거를 해 오고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1864년의 ‘금문의

4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伊丹忍礼, 「殉国七士の碑: 興亜観音にその墓のあるわけ」, 『興亜観音』 16号, 2002; 종교법인 예배산홍아관음 리플렛(<http://www.koakannon.org/box2/k03.pdf>) 참조. 참고로 덧붙이면, A급 전범 7인의 유골 일부는 1960년에 새롭게 조성된 순국칠사묘(殉国七士廟, 아이치현 산가네산(三ヶ根山) 소재)로 옮겨졌다. 옮겨진 유골은 ‘순국칠사묘’(殉国七士廟)라고 새겨진 석비[기시 노부스케(岸信介) 휘호] 아래에 안장되었다. 단, 일반사단법인 순국칠사봉찬회 공식 홈페이지에는 “묘비가 정비되어 마침내 칠사의 유골이 옮겨집니다” 등의 문장과 관련 사진이 보여, 홍아관음에 임시로 안치되었던 7인의 유골 일체가 순국칠사묘로 옮겨졌다는 점을 시사한다(<http://ki43.on.coocan.jp/index.html>, 최종 검색일: 2017. 12. 10). 유골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각주에서 인용한 자료를 포함하여 현대 일본사회의 관련 담론들을 근거로 삼아 7인의 유골이 홍아관음, 순국칠사묘에 분사되었다는 인식을 전제로 서술하고 있다.

5 「A級戦犯、遺灰眠る観音 静岡・熱海の寺に参拝者戸惑う遺族も」, 『朝日新聞』 2009. 8. 27.

6 東京新都心口タリクラブ 홈페이지(<http://www.tokyo-shintoshin-rc.org/schedule/2648/>) 참조(최종 검색일: 2017. 10. 23). 「会員の声・特集」, 『興亜観音』 28号, 2008, 15쪽도 참조할 것.

변'에서 발생한 전사자 가운데 황궁을 향해 발포했던 적군(賊軍) 전사자가 먼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고 뒤이어 황궁을 수비했던 관군 전사자가 합사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1930년대에는 보신(戊辰)전쟁 당시 신정부군에 대치하다 전사한 니혼마쓰번(二本松藩)의 미우라 곤다유(三浦権太夫)가 합사되었고, 1965년에는 1853년 이후에 발생한 국내외의 순난자 가운데 야스쿠니 신사 본전에 합사되지 않은 일체의 영혼을 제신으로 받드는 진레이샤(鎮靈社)가 본전 왼편에 건립되었다.⁷ 진레이샤에는 황궁에게 충부리를 겨누는 외국인 전사자, 적군(賊軍)으로서 생을 마감한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사례를 고려하면 야스쿠니 신사의 '원천평등 순국기 위령제'가 꼭 어색한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야스쿠니 신사가 어디까지나 아군, 관군 전사자 추도에 방점을 찍고 있고, 그에 연동하여 적군(敵軍/賊軍) 전사자 추도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위에서 든 사례에서 말하자면, 진레이샤의 경우 A급 전범 합사를 단행한 마쓰다이 나가요시(松平永芳) 공사 시절에는 일반에 일절 공개되지 않았으며,⁸ 현재도 반 통제구역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또 메이지 유신 150주년을 앞두고 2016년 10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등이 새삼스레 제기한 사이고 다카모리, 백호대(白虎隊) 등 적군(賊軍)의 합사⁹도 조기에 실현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시하라 등의 합사 요청은 야스쿠니 신사의 정체성, 나아가 역사

7 이상의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들을 참조. 秦郁彦, 「靖国神社「鎮靈社」のミステリ: “逆賊”西郷隆盛も白虎隊も靖国に祀られていた」, 『文芸春秋』 79卷 13号, 2001; 秦郁彦, 『靖国神社の祭神たち』, 新潮社, 2010; 吉原康和, 『靖国神社と幕末維新の祭神たち: 明治国家の「英霊」創出』, 吉川弘文館, 2014.

8 毎日新聞「靖国」取材班, 『靖国戦後秘史: A級戦犯を合祀した男』, 毎日新聞社, 2007, 135~136쪽.

9 「西郷隆盛, 新選組…「賊軍」も靖国神社に合祀を 亀井静香元金融担当相らが近く宮司に申し入れ」, 『産経ニュース』 2016. 10. 8, <http://www.sankei.com/politics/news/161008/pl1610080007-n1.html> (최종 검색일: 2017. 10. 25); 「「西郷隆盛や新選組, 靖国合祀を」石原氏らが「申し書」, 『朝日新聞デジタル』 2016. 10. 12, <http://www.asahi.com/articles/ASJBD5HRTJBDUTFK017.html> (최종 검색일: 2017. 10. 25); 「靖国に明治維新の「賊軍」合祀を 亀井, 石原氏ら要請」(『日本経済新聞 電子版』 2016. 10. 12), https://www.nikkei.com/article/DGXLASDE12H0K_S6A011C1PP8000/ (최종 검색일: 2017. 10. 25). 메이지유신기에 발생한 적군(賊軍) 전사자의 야스쿠니 신사 합사 문제는 일찍이 러일전쟁 직후부터 공론화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세연, 「폐자 아이즈의 적군 전사자 제사와 그 정치적 맥락들」, 『사립』 57호, 2016, II 장 참조.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야스쿠니 신사 측은 “곧바로 그리 하겠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라는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¹⁰

이렇게 볼 때, 적군(敵軍) 전사자의 추도를 표명하는 ‘원친평등 순국기 위령제’가 야스쿠니 신사에서 공공연하게 개최된 것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묘한 행사를 둘러싼 맥락과 구도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위치한 홍아관음을 다각도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내셔널리즘을 키워드로 삼아 2000년 전후의 홍아관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적군 전사자 추도를 매개로 하는 종교 내셔널리즘의 논리구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이 글에서 2000년 전후를 검토 시기로 설정한 이유는 이 시기에 홍아관음이 새삼 각광을 받고 관련 담론이 비교적 많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인 맥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시기에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을 매개로 역사수정주의 담론이 봇물처럼 터져나왔고, 그에 연동하여 홍아관음이 재조명되었다. 마쓰이 이와네, 난징대학살, A급 전범, 도쿄재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홍아관음은 이 시기에 이르러 재발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¹ 둘째, 이 같은 재발견에 즈음하여 1994년에는 육사 58기를 중심으로 ‘홍아관음을 지키는 모임’(興亜観音を守る会, 이하 ‘지키는 모임’)이 결성되었다. 이후 2009년까지 ‘지키는 모임’은 종교법인 홍아관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양자 간에 공유된 이야기들은

10 각주 9)의 기사를 참조. 다만, 적군(賊軍) 가문 출신인 도쿠가와 야스히사(徳川康久) 야스쿠니 신사 궁사가 보신전쟁을 ‘관군 대 적군’이 아니라 ‘동군 대 서군’의 구도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 기사를 참조. 『靖国神社の徳川宮司「明治維新という過ち」発言の波紋』, 『NEWSポストセブン』 2016. 6. 20. https://www.news-postseven.com/archives/20160620_422520.html(최종 검색일: 2017. 10. 25). 참고로 덧붙이면, 보신전쟁을 ‘동군 대 서군’의 구도로 파악하는 역사 인식은 이미 1870년대부터 발견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세연, 『패자 아이즈의 적군 전사자 제사와 그 정치적 맥락들』, 373~374쪽 참조.

11 『홍아관음』(興亜観音) 등을 참조하면, 일본사회에서 홍아관음이 재발견되는 데 특히 큰 역할을 한 것은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의 저작(『新ゴーマニズム宣言SPECIAL戦争論 (2)』, 幻冬舎, 2001; 『いっわるA級戦犯』, 幻冬舎, 2006)과 영화 〈난징의 진실〉(2008년 개봉)이었던 것 같다.

‘지키는 모임’의 반년간 회보 『흥아관음』(興亞觀音)에 수록되었다. 이 글에서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도 바로 이 ‘지키는 모임’과 『흥아관음』이다.

흥아관음을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아마다 유지(山田雄司),¹² 이세연의 연구¹³를 들 수 있지만, 양자 모두 1940년대의 상황을 다루는 데 그치고 있다. 즉, 전후의 흥아관음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이 글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전후의 흥아관음을 개관하는 데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이어서 ‘지키는 모임’과 『흥아관음』을 둘러싼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본 후, 구체적인 담론 분석에 들어가하고자 한다.

2. 전후의 흥아관음과 ‘흥아관음을 지키는 모임’

1) 흥아관음 약사(略史)

아시아의 흥륭을 내세운 흥아관음은 이른바 ‘대동아전쟁’ 시기에 크게 주목 받았다. 관음신앙운동이라 할 만한 시대사조를 배경으로, 아타미의 흥아관음은 일본의 불교도들이 본받아야 하는 모범사례로 인식되었다. 실제로 여러 개의 불상이 ‘흥아관음’이라는 이름하에 일본 국내외를 오갔는데, 그중 일부에는 마쓰이 이와네도 깊이 관여했다. 아시아 공통의 신앙대상인 관음 보살을 매개로 대동아전쟁의 정당성이 설파되는 가운데, 흥아관음은 일종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었다.¹⁴

이 같은 흐름은 1945년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일변했다. GHQ의 시선을 의식하여 ‘흥아’라는 명칭을 손질하자고 제안한 어느 지역 유지에 대해 영어의 몸인 마쓰이가 일갈하는 해프닝도 있었다.¹⁵ 앞서 A급 전범 7인의

12 山田雄司, 「松井石根と興亜觀音」, 『三重大史学』 9号, 2009.

13 이세연, 『사무라이의 정신세계와 불교: 일본사회의 전사자공양과 怨親平等』, 제5장.

14 자세한 내용은 山田雄司, 「松井石根と興亜觀音」; 이세연, 『사무라이의 정신세계와 불교: 일본사회의 전사자공양과 怨親平等』, 제5장 참조.

15 田中正明, 「興亜觀音ものがたり」, 『興亜觀音』 2号, 1995, 11쪽.



〈그림 2〉 홍아관음 본당(왼쪽)과 내부(오른쪽)

유골에 관한 일화를 소개했지만, GHQ의 일본 점령기간 동안 홍아관음의 존재감은 좀처럼 드러나기 어려웠다.

이 시기에 홍아관음을 관리한 인물은 이타미 닌레이(伊丹忍礼)였다. 이타미는 홍아관음 건립 당초 법화종 사찰인 혼조지[本成寺, 니가타현 산조시(三条市) 소재]로부터 초빙된 인물로, 1946년 3월 구속을 앞둔 마쓰이로부터 홍아관음의 유지, 관리를 부탁받았다. 이타미는 마쓰이의 뜻을 받들어 1985년 사망할 때까지 홍아관음의 주지로 활동했다.¹⁶ 참고로 덧붙이면, 이타미의 뒤를 이어 홍아관음을 관리한 것은 부인 묘신(妙眞)과 세 딸이었다. 현재는 이타미의 셋째 딸인 묘조(妙淨)가 홍아관음에 머물고 있다.

1952년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자 홍아관음도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55년 종교법인 예배산홍아관음이 정식 인가되었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59년에는 ‘칠사지비’가 건립되었다.

‘칠사지비’ 건립사업은 홍아관음 지원단체인 ‘홍아관음 봉찬회’(이하 ‘봉찬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봉찬회’는 일찍이 1942년에 설립되었으며, 1959년 당시 아타미의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회장은 중국통 경제인으로 저명한 다카기 리쿠로(高木陸郎)였다. 요시다 시게루의 휘호를 주선한 것도 다카기였다고 한다.¹⁷

16 岩本一, 「興亜観音 回想あれこれ」, 『興亜観音』 3号, 1996; 高橋正二, 「興亜観音を仰ぐ」, 『興亜観音』 10号, 1999; 伊丹妙浄, 『興亜観音とわたくし』, 興亜観音, 2011 참조.

17 이상 ‘七土之碑’ 조성에 관해서는 伊丹忍礼, 「殉国七土の碑: 興亜観音にその墓のあるわけ」 참조. 또 다

‘칠사지비’의 건립은 홍아관음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을 법도 한데, 그런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후 봉찬회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1971년에는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에 의한 칠사지비 폭파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¹⁸ 전후 일본사회에서는 홍아관음을 둘러싸고 두 가지 상반된 기억이 맞서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꾸준히 홍아관음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육사 58기였다. A급 전범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郎)의 아들 다다시(正)가 육사 58기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육사 58기는 1977년 홍아관음에서 위령제를 거행했으며, 1980년에는 다다시의 참의원(자민당 소속) 당선 보고회를 역시 홍아관음에서 거행했다.¹⁹

홍아관음의 유지 관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은 ‘지키는 모임’의 결성이었다. 1993년 5월 18일 ‘봉찬회’ 측은 홍아관음 예제(例祭) 참가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데, 이에 즉각 호응한 것은 역시 육사 58기였다. 이들의 주도로 같은 해 9월 ‘홍아관음을 생각하는 모임’이 해행사(偕行社)에서 개최되었으며,²⁰ 이듬해 11월에는 ‘지키는 모임’ 창립총회가 개최되기에 이른다.²¹

이런 움직임에 호응하듯 우익 언론에서도 홍아관음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한다. 예컨대, 현 ‘일본회의’²²의 실무조직이라 할 수 있는 일본청년협

카기의 면모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를 참조. 吉塚康一, 「高木陸郎と辛亥革命: 盛宣懷の日本亡命を中心に」, 『次世代アジア論集: 早稲田大学アジア研究機構「次世代アジアフォーラム」研究成果報告論文集』 8号, 2015.

18 「東条ら処刑戦犯の碑爆破 過激派の犯行か」, 『読売新聞』 1971. 12. 13; 「東条英機らの石碑爆破さる」, 『朝日新聞』 1971. 12. 13; 伊丹妙浄, 『興亜観音とわたくし』 참조.

19 이상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를 참조. 三正一, 「殉国七士碑(熱海)の御前に板垣君, 感激の参院当選報告」, 『偕行』 357号, 1980.

20 三正一, 「興亜観音を考える」, 『偕行』 512号, 1993; 「創立経過報告」, 『興亜観音』 創刊号, 1995 참조.

21 「創立総会開く守る会, 正式にスタート」, 『興亜観音』 創刊号, 1995 참조.

22 ‘일본회의’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들을 참조. 菅野完, 『日本会議の研究』, 扶桑社, 2016; 『週刊金曜日』 成澤宗男 編, 『日本会議と神社本庁』, 金曜日, 2016; 山崎雅弘, 『日本会議: 戦前回帰への情念』, 集英社, 2016; 藤生明, 『ドキュメント 日本会議』, 筑摩書房, 2017; 김태기, 「‘일본회의’의 성장과 종교단체의 역할: ‘생장의 집’(生長の家)을 중심으로」, 남기정 역음, 『일본 정치의 구조 변동과 보수화』, 박문사, 2017. 그밖에 ‘일본회의’를 둘러싼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파악하는 데는 다음 논고들도 참고할 만하다. 中島岳志·島蘭進, 『愛国と信仰の構造: 全体主義はよみがえるのか』, 集英社, 2016; 小林正弥, 『神社と政治』, 角川新書, 2016.

의회의 기관지에는 홍아관음 관련 기사가 연이어 등장했으며,²³ 『동향』(動向)에도 ‘지키는 모임’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²⁴

해행사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결성된 ‘지키는 모임’은 진입로의 정비, 경내의 기초공사 등 홍아관음이 종교 시설로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타미 가문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1999년 도조 유코(東條由布子, 도조 히데키의 손녀)가 관련된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했지만,²⁵ ‘지키는 모임’과 종교법인 홍아관음의 관계는 대체로 양호했다.

그러나 2008년 무렵부터 양자의 관계는 심각하게 틀어지기 시작했다. 진상은 알 수 없지만, ‘지키는 모임’ 측은 이타미 가문의 양자가 되어 집사 역할을 하던 이타미 세이메이(伊丹靖明)가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홍아관음 측은 ‘지키는 모임’의 일부 이사가 신종교 세계구제교와 결탁하여 홍아관음의 자금을 유용, 홍아관음 진입로 인접지에 애완동물 묘역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측의 대립은 악화일로로 치달아, 2009년 9월 결별하고 만다.²⁶ 이후 홍아관음은 2008년에 활동을 재개한 ‘봉찬회’²⁷의 지원을 받으며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으며, ‘지키는 모임’은 2010년 이후 사실상 해체되었다.

‘지키는 모임’과 결별 후에도 홍아관음에는 표면상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5월 18일의 예제 등 각종 행사는 변함없이 개최되고 있으며,²⁸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연방 일본불교도협회의회의 순국칠사 위령법요도

23 関口孝, 「興亜観音にみる日本人の慰霊の心」, 『祖国と青年』 187号, 1994; 「『戦犯』殉難者のみたまを守る 興亜観音」, 『祖国と青年』 203号, 1995. 203号의 표지에는 ‘七土之碑’ 사진이 게재되어 있기도 하다.

24 徳富太三郎, 「興亜観音を守ろう」, 『動向』 1552号, 1995.

25 運営委員共同執筆, 「興亜観音を守る会 総会の顛末とその後の経緯」, 『興亜観音』 10号, 1999.

26 분쟁 과정에서 홍아관음 측은 ‘지키는 모임’ 회장 나카무라 아키라(中村繁)가 조정자 역할을 방기했다고 비판하며 2009년 9월 절연장(絶縁状)을 송부했으며, 기타 이사들의 입산도 금지했다(좀 더 자세한 내용은 『興亜観音』 32号, 2010에 수록된 기사들을 참조). 2011년 ‘지키는 모임’의 일반 회원들이 ‘홍아관음 문제를 규명하는 모임’을 결성하여 사실 규명에 뛰어들었지만, ‘지키는 모임’과 홍아관음 측은 분쟁을 해결하지는 못했다(<http://kouakannontadasukai.blog.fc2.com/> 참조).

27 『興亜観音』 28号, 2008, 20~22쪽의 관련 기사 참조.

28 <https://www.youtube.com/watch?v=QI78ubBjZoc>(2014년 예제 동영상, 최종 검색일: 2017. 10. 29); 종교법인 예배산홍아관음 홈페이지(<http://www.koakannon.org/>) 참조(최종 검색일: 2017. 10. 29).

2013년까지 매년 흥아관음에서 꾸준히 개최되었다.²⁹

2015년부터는 일본 재건을 주장하는 ‘재생일본21’이라는 단체와 관계를 맺었다.³⁰ 2017년 5월에는 이 단체의 주최로 가마쿠라의 엔가쿠지(円覚寺)와 흥아관음을 잇는 위령법요 투어가 실시되었다.³¹ 엔가쿠지는 여몽연합군의 일본 침공 과정에서 발생한 아군, 적군 전사자를 추도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생일본21’이 주최한 투어는 말하자면 원친평등을 매개로 중세와 근대의 종교 시설을 한 데 묶은 투어였던 셈이다. 투어 직후에 흥아관음 주지 묘조가 엔가쿠지를 방문한 것을 감안하면,³² 이 투어는 향후 정기적인 것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2) ‘흥아관음을 지키는 모임’의 인적 구성과 『흥아관음』(興亞觀音) 집필진

흥아관음의 유지 관리에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한 ‘지키는 모임’은 출발 당시부터 쟁쟁한 멤버들을 임원으로 선출했다. 1기 집행부(1994~2003)의 주요 인물은 <표 1>과 같다.

회장 다나카 마사아키(田中正明, 1911~2006)는 마쓰이 이와네의 사설비서였던 인물이다. 전후에는 역사수정주의의 입장에서 많은 저서를 남겼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일본의 주권 회복에 발맞춰 도쿄재판의 부당함을 주장한 『일본무죄론: 진리의 단죄』(日本無罪論: 真理の裁き, 太平洋出版社, 1952), 난징대학살의 존재를 부정하는 취지에서 집필한 『난징사건의 총괄: 학살을 부정하는 15가지 논거』(南京事件の総括: 虐殺否定十五の論拠, 謙光社, 1987)를 들 수 있

29 환아시아지역진물자위령협회 홈페이지(<http://www011.upp.so-net.ne.jp/senbotsu-irei/>) 참조(최종 검색일: 2017. 10. 9). 위령법요의 주체인 세계연방 일본불교협의회는 1967년 결성된 세계연방 일본종교위원회 소속 단체로, 국제 간의 종교 협력을 통한 세계연방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http://www.serenbutu.jp/>) 참조(최종 검색일: 2017. 10. 9).

30 ‘재생일본21’의 홈페이지 뉴스(<http://www.saisei21.jp/category/news/>) 참조(최종 검색일: 2017. 10. 29). ‘재생일본21’의 구성원 가운데 일부는 ‘봉찬회’에도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재생일본21’의 이사로 이나다 마사히코(稲田雅彦)라는 인물이 보이는데, 동명의 인물이 종교법인 예배산흥아관음의 홈페이지에 ‘봉찬회’ 이사의 명의로 글을 남기고 있다.

31 <http://www.saisei21.jp/shijyuku/h29onshin> 참조(최종 검색일: 2017. 10. 29).

32 종교법인 예배산흥아관음 홈페이지(<http://www.koakannon.org/>)에 따르면, 묘조는 2017년 6월 2일 엔가쿠지 요코타 난레이(横田南嶺) 관장을 방문했다.

〈표 1〉 ‘지키는 모임’ 1기 집행부의 주요 임원

직함	성명	당시의 직업, 출신 등
회장	田中正明	저술업, 대아시아협회, 마쓰이 대장 비서
부회장	堀江正夫	일본향우연맹 회장, 전 참의원 의원, 육사 50기
	中村粲	독교(独協)대학 교수
이사장	大和瀨克司	육사 52기
부이사장	新野英一	육사 56기
이사	小田村四郎	행정관리청 전 차관
	小堀桂一郎	메이세이(明星) 대학 교수
	佐藤和男	아오야마(青山) 학원대학 교수, 해병 75기
	名越二荒之助	다카치호(高千穂) 상과대학 강사
고문	富士信夫	도쿄재판 연구가, 해병 65기
	松平永芳	야스쿠니 신사 전 공사
	板垣正	참의원 의원, 육사 58기
감사	倉林和男	‘영령에 답하는 모임’ 사무국장

출처: 『興亜観音を守る会主要役員』(『興亜観音』 창간호, 1995, 17쪽).

다. 다나카는 1994년 당시 84세의 고령이었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인물이었던 만큼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었던 것 같다.

부회장 호리에 마사오(堀江正夫, 1915~)는 전후 육상자위대에 몸담았던 보수 정객으로, 현재는 ‘영령에 답하는 모임’(英霊にこたえる会)의 명예회장이 다. 나카무라 아키라(中村粲, 1934~2010)는 당대를 대표하던 보수 논객으로, 대표작 『대동아전쟁으로의 길』(大東亜戦争への道, 展転社, 1990)은 오늘날의 보수진영에서도 널리 애독되고 있다. 1994년 당시 사설연구기관인 쇼와사(昭和史)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2006년과 2009년에는 ‘지키는 모임’ 3대, 4대 회장에 취임한다.

이사장 오와세(大和瀨克司)와 부이사장 아라노(新野英一)의 이력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지키는 모임’이 해행사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결성된 점을 감안하면, 두 사람은 해행사 파견 대표의 입장에서 ‘지키는 모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참고로 덧붙이면, 아

라노는 2기 집행부(2003~2006)에서 이사진을 맡게 되고 ‘지키는 모임’이 해체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킨다.

이사진으로 눈을 돌려보면, 오늘날에도 건재한 우익 인사들이 꽤 많이 눈에 띈다. 예컨대, ‘일본회의’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2017년 10월 기준으로 오다무라 시로(小田村四郎, 1923~)와 고보리 게이치로(小堀桂一郎, 1933~)는 부회장, 사토 가즈오(佐藤和男, 1927~)는 대표위원을 맡고 있다. 경제관료 출신인 오다무라는 ‘영령에 답하는 모임’ 부회장, ‘일본의 숨결 북렛’(日本の息吹ブックレット)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는 메이세이샤(明成社)의 사장 등을 역임했다. 비교문학자인 고보리는 역사교과서 문제, 황위계승 문제, 납치 문제, 생전퇴위 문제 등 굵직한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으며, ‘채널 사쿠라’(チャンネル桜)에서도 꾸준히 지론을 펼쳐왔다. 국제법학자인 사토는 『헌법9조: 침략전쟁·도쿄재판』(憲法九条 侵略戦争 東京裁判, 原書房, 1985) 등의 저술을 통해 주로 도쿄재판의 부당함을 지적해왔다. 한편 나고시 후타라노스케(名越二荒之助, 1923~2007)는 일찍이 『대동아전쟁을 재평가하자』(大東亜戦争を見直そう, 原書房, 1968)를 집필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채널 사쿠라에서도 대표적인 강사의 한 명으로 활동했다.

고문 후지 노부오(富士信夫, 1917~2005)는 도쿄재판을 방청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본 도쿄재판』(私の見た東京裁判, 講談社, 1988) 등 관련 서적을 다수 집필한 인물이며, 마쓰다이라 나가요시(松平永芳, 1915~2005)는 예의 A급 전범 7인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한 인물이다. 앞서 언급했던 이타가키 다다시(板垣正, 1924~)는 2003년 ‘지키는 모임’ 2대 회장에 취임한다. 현재는 ‘일본회의’ 대표위원, 일본유족회 고문을 맡고 있다. 감사 구라바야시 가즈오(倉林和男)는 ‘영령에 답하는 모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2009년 사망 전의 직함은 같은 모임의 상임고문이었다.

1기 집행부의 면면을 보았을 때 인상적인 것은 그들 대부분이 70대의 고령이라는 사실이다. 이 점은 집행부 내부에서도 문제시되었음에 틀림없다. 실제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키는 모임’의 집행부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피들이 수혈되었다. 4기 집행부(2009~)를 예로 들면, 이사진에 아라 겐

이치(阿羅健一, 1944~), 히가시나카노 슈도(東中野修道, 1947~), 후카다 다쿠미(深田匠, 1966~) 등 전쟁 경험과는 거리가 먼 보수 논객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

위에서 거론한 임원진은 『홍아관음』에 여러 편의 논고를 게재하며 여타 회원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다. 그런데 일반회원 자격으로 『홍아관음』에 투고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주목할 만한 인물이 상당수 보인다. 예컨대, 구 육군 출신 경제계 인사들의 클럽인 동대경제간담회(同台經濟懇話會) 회장 세지마 류조(瀬島龍三, 1911~2007), 야스쿠니 신사에 늘 군복 차림으로 나타나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구 육군 헌병 출신 히라키 이사무(開勇, ?~2008), 교린(杏林)대학 명예교수이자 현 ‘일본회의’ 회장인 다쿠보 다다에(田久保忠衛, 1933~), 제3차 아베 내각에서 방위성 장관을 역임한 중의원 의원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등이 눈에 띈다. 참고로 덧붙이면, 2004년 『홍아관음』에 기고할 당시 아직 정계에 입문하지 않았던 이나다는 이른바 ‘백인참수소송’의 주임변호사로서 관련 논고를 투고했다.³³

이상에서 살펴본 인사들의 면면을 감안할 때, ‘지키는 모임’과 『홍아관음』이 우익 네트워크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겠다. ‘지키는 모임’과 『홍아관음』은 당대의 우익 인사들이 분주히 교류하는 담론 공간이었던 것이다.

3. 적군 전사자 추도를 둘러싼 연속과 단절

1) 홍아관음과 ‘문명’의 전통

『홍아관음』에서 가장 많이 다룬 이슈는 난징대학살이다. 난징대학살이 역사 수정주의 전반에서 핵심담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홍아관음』에서 관련 기사가 많이 등장하는 것에 놀랄 일은 아니라 하겠다. 물론 학살이라 할 만한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 일부 일탈행위가 있었다는 입장 등 각론으로

33 稲田朋美, 「なぜ、今「百人斬り」名誉毀損裁判なのか」, 『興亜観音』 19号, 2004.

들어가면 이야기는 갈리지만, 난징대학살은 연합군 측이 고안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기본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마쓰이 이와네는 비극의 주인공과 다름 없는 데, 이 점을 한층 드라마틱하게 만든 것은 마쓰이가 숭고한 아시아주의자였다는 인식이었다. 즉, 대동아공영권 구축을 위해 부득이 중국군과 맞서게 된 마쓰이는 전쟁수행 과정에서는 군율을 엄히 하고 전후에는 중국군 전사자를 추도하는 데 여념이 없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중국인들을 학살했다는 죄목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홍아관음은 그런 마쓰이의 언행과 사적을 회상하게 하는 기억장치³⁴였다.

홍아관음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되새긴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쓰이의 언행과 사적 너머 일본의 전통을 바라보고 있었다. 『홍아관음』 창간호의 앞머리에는 “적군·아군, 승자·패자의 구분 없이 위령 공양을 하는 것은 무사도, 일본문화의 정수입니다”³⁵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후 32호에 이르기까지 이와 유사한 문장이 다수 등장한다. 그중 몇 가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마쓰이 이와네 대장은 1940년 아타미 이즈산(伊豆山)에 적군 아군, 승자·패자의 구분 없이 전몰자 공양을 위해 ‘홍아관음’을 건립하셨다. 실로 무사도의 발로라고 할 것이다.³⁶

실제로 싸우고 있는 적군 전몰자도 제사지낸다. 이것은 마쓰이 대장이 제창한 ‘대아시아주의’, 즉 아시아 여러 나라는 연대하여 동아의 안정을 도모하고 세계 평화에 공헌하고자 한다는 의지의 실천에 다름 아닙니다. 적군의 전몰자도 위령하는 것은 일본문화, 일본무사도의 정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³⁷

34 ‘기억장치’라는 표현은 小松和彦, 「「たましい」という名の記憶装置」, 『記憶する民俗社会』, 人文書院, 2000에서 원용한 것임.

35 『興亞觀音』創刊号, 1995, 1쪽.

36 中条高德, 「興亞觀音と平和」, 『興亞觀音』2号, 1995, 7쪽.

37 瀬島龍三, 「私共の務め」, 『興亞觀音』3号, 1996, 1쪽.

적군, 아군을 불문하고 원천평등하게 전물자를 공양하는 것은 일본의 전통정신입니다.³⁸

일본인은 태고 이래로 패자를 가엽게 여겨 적의 전사자를 추도하는 민족이다.³⁹

아군 전물자는 물론 적의 전물자를 추도하는 것은 당시의 일본군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으며 또 우리나라 무사도의 전통으로서 많이 거행되고 있었다.⁴⁰

무사도, 일본문화, 원천평등, 전통, 민족 등의 키워드가 이런저런 조합을 이루고 있지만, 내셔널리즘의 지평 위에서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아관음』을 관통하고 있는 이 같은 부류의 문장들을 접하다 보면, 정형화된 이야기들을 찍어내는 거꾸집 같은 것이 있는 게 아닌지 상상하게 된다. 즉, 위에서 든 키워드들이 주입되었을 때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산출되는 견고한 인식 틀이 존재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그것은 일찍이 메이지 시대부터 차츰 형성되어 1930~1940년대에 굳어진 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메이지 신정부의 지상과제는 불평등조약 개정이었다. 이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적십자조약 가입이 큰 이슈로 떠오른다. 당시 적십자조약은 ‘문명’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었던 바, 메이지 신정부에게 적십자조약 가입은 일본이 ‘문명’ 세계의 일원이라는 점, 따라서 평등한 조약을 맺을 수 있는 상대라는 점을 서구열강에 어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적십자조약 가입 과정에서 메이지 신정부는 일본에도 박애정신, 즉 적십자정신에 필적할 만한 ‘문명’의 전통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다.

38 「57年間の風雪に耐えた興亜観音」, 『興亜観音』 4号, 1996, 2쪽.

39 名越二荒之助, 「中国への逆襲一つの試み」, 『興亜観音』 16号, 2002, 1쪽.

40 徳富太郎, 「興亜観音の根本的精神について」, 『興亜観音』 16号, 2002, 11쪽.

‘신라 정벌’에 앞서 항복하는 자는 죽이지 말라고 했다는 신공황후의 일화, 세이난전쟁기 박애사의 활동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결국 1886년 적십자조약 가입에 성공한다.

그런데 적십자조약 가입을 계기로 부각된 ‘문명’의 전통에 대한 관심은 이후에도 지속된다. 일본의 역사로부터 ‘문명’의 증거들이 본격적으로 수집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적군 전사자 추도의 사례들도 각광받게 되었다.⁴¹ 임진전쟁 직후에 형성된 이충과 고려진공양비도 그런 사례들의 하나로 손꼽히게 된다. 메이지 시대부터 이어진 ‘문명’ 수집 작업은 쓰지 첸노스케(辻善之助)의 『일본인의 박애』(日本人の博愛, 金港堂, 1932)를 통해 일단락되었다.

이처럼 1880년대 이래로 ‘문명’의 전통이 만들어져가던 시기에 일본은 연이어 대외전쟁을 경험한다. 아군 전사자와 적군 전사자가 뒤엉킨 전장은 ‘문명’의 전통을 구현할 수 있는 장이었다. 중군승과 군인들은 적십자조약을 매개로 설파되기 시작한 ‘문명’의 전통을 의식하며 적군 전사자를 추도했고, 그들의 그런 행위는 다시 ‘문명’의 전통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방증하는 사례, 또 그런 전통이 현실세계에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기억되었다. 1940년 홍아관음이 아타미에 세워질 무렵에는 적군 전사자 추도의 배후에 ‘만들어진 전통’의 오랜 맥락이 존재한다는 점은 전혀 인지되지 못했다. 전후에도 이러한 맥락은 좀처럼 의식되지 못했으며, 적군 전사자 추도는 전통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소환되었다.⁴² 위에서 인용한 동어반복적인 문장들의 기원은 이처럼 한 세기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다.

2) 적군 전사자 추도의 메커니즘과 내셔널리즘의 담론 공간

1940년대든 2000년대든 홍아관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외

41 『홍아관음』에는 가마쿠라의 엔가쿠지,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의 적군 전사자 추도를 홍아관음의 전례로 제시하는 문장들도 더러 보이는데(徳富太郎, 『興亜観音から皆様へ』, 『興亜観音』 24号, 2006, 8쪽; 永江太郎, 『会員の声・抜粋』, 『興亜観音』 27号, 2008, 21쪽), 이들 사례 역시 본문에서 이야기한 맥락에서 근대에 수집된 것이다.

42 이상 ‘만들어진 전통’에 관한 서술은 다음 논고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이세연, 『사무라이의 정신 세계와 불교: 일본사회의 전사자공양과 怨親平等』, 서장, 제6장 제3절.

없이 일본사회의 자랑스러운 전통, 미풍양속을 환기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군 전사자 추도를 둘러싼 인식의 틀은 이미 굳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이 다른 만큼, 세부적인 시선에서는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1940년대의 경우 홍아관음은 한창 진행 중이던 ‘성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매개체였다. 비록 적으로 대치하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궁극적으로 대동아공영권을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연대의 대상이라는 감각이 살아 있었다. 여러 개의 ‘홍아관음’이 분주히 일본열도와 중국대륙 사이를 오간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렇다면 이런 감각은 2000년대에도 유지되고 있었을까? 다음 기사를 실마리로 삼아 이 점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7월의 어느 평일, 도쿄에서 왔다는 학생 커플이 향을 피워 바치고 있었다. 고바야시 요시노리 씨의 만화를 통해 이 장소를 알았다고 한다. 남학생(26)은 “적의 전사자까지 제사지내는 마음은 미국에도 중국에도 없다. 일본인다운 자랑스러운 시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 이타가키 세이시로의 차남 다다시 씨(85)는 “적군 아군 구별 없이 제사지내고 있다고 해도 중국 사람들에게는 분명 통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평균적인 일본인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시설도 아닐 것이다. 누구나 자연스레 발걸음이 향하는 시대가 되면 좋겠지만…”이라고 말한다. “다만 야스쿠니 신사처럼 이렇다 할 성과도 없는 정치문제화하는 정도라면 지금까지와 같은 상태로 좋다.”⁴³

기사의 전반부에서는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영향력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만화를 통해 홍아관음을 알게 된 대학생들은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에 겨워 아타미로 발걸음을 옮겼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홍아관음 방문을 전후하여 중세 이래의 관련 사적(史跡)도 접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대 일본

43 「A級戦犯、遺灰眠る観音 静岡・熱海の寺に参拝者、戸惑う遺族も」, 『朝日新聞』 2009. 8. 27.

사회에서 적군 전사자 추도의 수맥이 뻗어나가는 방식이 엿보여 흥미롭지만,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기사의 후반부다.

기자에게 발언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타가키 다다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타가키는 전후의 홍아관음의 유지 관리에 큰 힘을 발휘한 육사 58기의 일원으로, ‘지키는 모임’의 2대 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타가키는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털어놓고 있다. 즉, 그는 홍아관음에서 적군 전사자를 추도하는 행위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홍아관음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정치문제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유족으로서의 바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홍아관음에서 중국군 전사자를 추도한다 한들 정작 중국인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체념 조의 발언이 특히 눈에 띄는데, ‘지키는 모임’에서 적군 전사자 추도를 내심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것은 이타가키만이 아니었다. 예컨대, 군사평론가 사토 마모루(佐藤守)는 “홍아관음은 마쓰이 대장의 뜻을 이은 유지가 받들고 있지만, 중국인은 ‘적병을 공양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⁴⁴라고 단언한다.

이타가키와 사토가 품은 회의는 마쓰이가 주창해 마지않던 대아시아주의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적군 전사자를 추도하는 일본인의 ‘진의’가 통하지 않는 중국인을 상대로 연대를 구상하는 것은 부질없는 이상주의일 따름이라는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홍아관음』에는 그 같은 부류의 발언이 심심찮게 발견된다. 예컨대, 오다무라 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 같은 이상주의는 결국 외국인에게는 이해되지 못했고 특히 중국인에게는 극히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 이해 불능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들에게는 강고하여 빠져나오기 힘든 중화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비극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⁴⁵

44 佐藤守, 「英霊の嘆きが聞こえる」, 『興亜観音』 22号, 2005, 1쪽.

오다무라는 1940년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강고하여 빠져나오기 힘든 중화사상”에 주목하는 그의 시선이 현대에 걸쳐 있으리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우익의 증진으로 활동하고 있던 오다무라에게 ‘일본의 비극’을 초래한 대아시아주의는 지양해야 하는 부의 유산이었을 것이다. ‘지키는 모임’의 한 회원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좀 더 노골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마쓰이 이와네 대장도 그렇습니다만, ‘대아시아주의’라는 것은 사상적으로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사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는 하나’라는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지나와 조선반도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⁴⁵

이상의 사례에 비춰보건대, 마쓰이의 대아시아주의에 대해 내심 회의를 품고 있던 ‘지키는 모임’의 회원은 상당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인식하에 적군 전사자를 추도했던 것일까?

우선 분명히 해두어야 할 점은 아시아, 중국과의 연대 부정이 적군 전사자 추도라는 전통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기제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1940년대에 대아시아주의와 적군 전사자 추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것은 당대의 상황이었을 뿐 적군 전사자 추도라는 강고하고 오랜 전통 위에서 아시아, 중국과의 연대는 해프닝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지키는 모임’ 사람들에게 적군 전사자 추도는 아시아, 중국과의 연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켜나가야 하는 일본의 위대한 전통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그들에게 홍아관음은 최적의 장소가 아닐 수 없었다. 홍아관음은 낙차와 반전의 서사를 통해 일본의 위대한 전통을 도드라지게 만들 수 있는

45 小田村四郎, 「会員の声・特集」, 『興亜観音』 28号, 2008, 10쪽.

46 「会員の声・特集」, 『興亜観音』 28号, 2008, 14쪽.

무대였다.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홍아관음의 유지 관리를 부탁했던 마쓰이가 그러했듯이, A급 전범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이 잠들어 있는 홍아관음에서 적군을 추도하는 ‘지키는 모임’의 사람들은 일본의 위대한 전통을 자신들의 손으로 한층 견고하게 다질 수 있었다.

홍아관음의 적군 전사자 추도가 이 같은 성격의 것이라면, 1절에서 제시한 야스쿠니 신사의 ‘원친평등 순국기 위령제’는 전혀 어색할 것 없는 행사였다고 할 것이다. 적군 전사자를 원친평등하게 추도하는 행위 자체가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본래 위령제의 주인공인 적군 전사자들은 후경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산 자와 죽은 자를 둘러싼 이 메커니즘 속에서 적군 전사자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다.⁴⁷

단, 적군 전사자 추도와 야스쿠니 신사의 결합이 산 자와 죽은 자를 둘러싼 이 메커니즘만으로 온전히 설명될 수는 없다. 1940년대에도 동일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적군 전사자 추도는 아시아태평양전쟁기에도 야스쿠니 신사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제국이 건재하던 당시 프로파간다로서의 적군 전사자 추도는 야스쿠니 신사가 아닌 별도의 담론 공간이 필요했다. 적군 전사자 추도는 확대되는 전선을 따라 새롭게 창출되어가는 제국의 신민들 앞에서 펼쳐져야 했다.⁴⁸ 제국은 적군 전사자 추도를 둘러싼 내셔널리즘의 담론 공간을 야스쿠니 신사로부터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었다.

1945년 일본의 패망에 따른 제국의 소멸, 내셔널리즘의 담론 공간의 축소, 야스쿠니 신사에서의 적군 전사자 추도를 한층 실현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2011년에 가시화된 이유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

47 참고로 덧붙이면, 홍아관음과 야스쿠니 신사의 만남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일찍이 1996년에 야스쿠니 신사 공사 일행이 홍아관음에 참배한 바 있으며(『靖濤』, 『靖国』 491号, 1996; 田中正明, 「ミニ観音開眼供養に靖国神社の宮司参拝」, 『興亜観音』 4号, 1996), 2000년에는 야스쿠니 신사 숭경봉찬회에서 ‘지키는 모임’ 측에 ‘영령현창사업조성금’ 50만 엔을 교부하기도 했다(靖国神社崇敬奉賛会から興亜観音を守る会に英霊顕彰助成金交付さる, 『興亜観音』 12号, 2000).

48 자세한 내용은 이세연, 『사무라이의 정신세계와 불교: 일본사회의 전사자공양과 怨親平等』, 제5장 참조.

겠지만, 2000년 전후에 불거진 네오내셔널리즘⁴⁹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일본이란 무엇인가?”라는 네오내셔널리즘의 핵심 질문이 사회 전반에서 부단히 제기되는 가운데 적군 전사자들은 야스쿠니 신사의 문턱을 넘어섰던 것이다.

4. 내셔널리즘의 지평 너머

현대 일본사회에서 적군 전사자를 추도하는 것은 홍아관음만이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 불교계에서는 일찍이 일본의 패전 직후에 연합군 전사자를 추도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며,⁵⁰ 오늘날에도 그 뒤를 잇는 적군 전사자 추도 행사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⁵¹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네오내셔널리즘과 불가분의 관계인 ‘일본회의’ 관련 종교단체 및 개인도 적군 전사자 추도와 적지 않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⁵²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홍아관음의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짐작된다.

그렇다면 적군 전사자 추도가 내셔널리즘의 촘촘한 그물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도는 없는 것일까? 다음 기사는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49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논고를 참조. 박진우, 「네오내셔널리즘과 상징천황제」, 『일어일문학』 19호, 2003; 이규수, 「일본의 전쟁책임문제와 네오내셔널리즘」, 『아시아문화연구』 29호, 2013.

50 「怨恨なき平和」(『六大新報』 2127号, 1945. 9. 15, 1쪽); 「怨親平等管長願文(於高野山法要)」(『六大新報』 2129号, 1945. 10. 5, 2쪽); 「告示第六号」(『真宗』 1946. 5); 「告示第六号」(『真宗』 1947. 4); 「怨親平等のお盆まつり」(『読売新聞』 1946. 7. 9) 참조.

51 <https://jodo.or.jp/message/shusen70/>(정토종 홈페이지); <http://www.hiroshimapeacemedia.jp/?p=74071>(히로시마평화미디어센터 홈페이지); <http://www.oofuna-kannon.or.jp/01enkaku/index.html>(오후나칸논지[大船観音寺] 홈페이지) 참조(최종 검색일: 2017. 10. 31).

52 <https://www.nenpoushinkyoku.jp/report/31/index.html>(엄법진교[念法真教] 홈페이지); <https://www.gedatsukai.org/gedatukai-enkaku>(해탈회 홈페이지); <http://www.urasenke.or.jp/textm/headq/soke/visit/visit041/visit041.html>(우라센케[裏千家] 홈페이지) 참조(최종 검색일: 2017. 10. 31). 해탈회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도 아울러 참조할 것. 塚田穂高, 『宗教と政治の転轍点: 保守合同と政教一致の宗教社会学』, 花伝社, 2015, 81~90쪽.

구제(旧制) 중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은 군 관계의 학교에 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학교로부터 권유받아 보호자인 스승님께 당연히 허락받을 것이라 생각하며 원서를 가지고 갔더니, “네 높은 살인에 참가하겠다는 게냐?”라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 전후 야쿠시지(薬師寺)는 근처의 묘지에 전몰자를 공양하는 불탑을 건립했다. 중국과 남방 등 각지의 전장에서 흠을 모아 안에 넣고 ‘원친 평등 피아동인’(怨親平等 彼我同仁)이라고 새긴 석비도 세웠습니다. 매년 8월 15일 불탑 앞에서 승려가 비전(非戰)의 맹세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스승님은 전후에 ‘일억국민총참회론’을 설교했습니다. 전쟁은 군부만이 아니라 그것을 시인한 전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신도 가담했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겠죠. ‘전쟁은 살인’. 스승님의 한 마디는 그때까지 전쟁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어린 시절의 저에게 큰 울림을 주어 가치관이 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든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평화와 자유를 향수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 전쟁으로부터 배우고 깊이 반성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⁵³

위의 인용문은 나라시(奈良市)에 소재한 야쿠시지의 장로 마쓰쿠보 슈인(松久保秀胤)의 인터뷰다. 장로는 16살이던 1944년 해군병학교에 진학하고자 했다. 원서접수를 위해 보호자이자 스승인 하시모토 교인(橋本凝胤) 관주를 찾아갔지만 꾸중을 듣고 말았다. 전쟁은 곧 살인이라는 스승의 말에 크게 깨달은 장로는 이후 평화를 기원하는 의식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한다.

위 인용문에는 예의 원친평등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또 전장의 흠을 공수해왔다는 구절도 확인된다. 야쿠시지가 인연을 맺은 불탑과 석비는 소재면에서 홍아관음을 방불케 한다. 그러나 논조는 사뭇 다르다.

야쿠시지의 추도 공간에는 낙차와 반전의 서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곳을 채우고 있는 것은 전쟁과 인간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평화에 대한 농밀한 상상력이다. 적군 전사자가 깊은 침묵에서 깨어날 수 있

53 「平和を祈る 僧のみた戦争(中) 松久保秀胤・薬師寺長老 兵学校進学 師匠が'反対」, 『読売新聞(大阪朝刊)』 2011. 8. 11.

는 새로운 지평의 가능성은 이런 곳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관음상’에 관한 기미시마 아야코(君島彩子)의 최근 연구는 크게 주목된다.⁵⁴ 기미시마는 전후 일본사회에서 관음상이 전사자 추도,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사례들을 폭넓게 수집, 분석하고 있다. 세계평화운동의 일환으로 관음상을 제작하여 일본 국내외의 각지에 배포하는 한편 오사카 만국박람회의 라오스관을 양도받아 쇼와지(昭和寺)라는 신불습합(神佛習合)의 사찰을 짓고 그곳의 주지로서 생을 마감한 아마자키 료준(山崎良順)의 사례, 민간인을 포함하여 일체의 전쟁 관련 희생자를 추도하는 괘, 사이판의 ‘마리아관음’의 사례는 특히 인상적이다.

다만, 기미시마가 주목하는 ‘평화관음상’ 운동에도 내셔널리즘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예컨대, 위에서 언급한 아마자키의 경우 그 스승인 시이오 벤쿄(椎尾弁匡)가 황도불교를 주창했던 인물이라는 점, 그가 말년을 보낸 사찰의 명칭이 다름 아닌 쇼와지라는 점, 또 그 사찰의 본존 양편에 ‘금상폐하성원원성’(今上陛下聖願円成), ‘소화군민보은사덕’(昭和君民報恩謝德)이라는 기원 문구가 보인다는 점⁵⁵은 아마자키의 ‘평화관음상’ 운동이 중국에는 내셔널리즘으로 수렴되고 말았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게 한다.

홍아관음이 만들어진 1940년대에도 평화는 주창되었다. 심지어 그것은 내셔널리즘의 지평 너머를 꿈꾸는 것이기도 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전후 일본사회에서 유통된 평화 담론의 맥락을 확인하는 작업은 단순히 전후의 일본인들이 내셔널리즘의 지평 너머 어떤 세상과 삶을 원했는지를 가늠하는 작업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실로 트랜스내셔널한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54 「原爆の記憶と観音像：広島・長崎の公園の事例から」, 『総研大文化科学研究』 11号, 2015; 「大阪万博の平和観音：共生運動の超宗派的展開」, 『近代仏教』 22号, 2015; 「現代のマリア観音と戦争死者慰霊」, 『宗教研究』 89号(別冊), 2016; 「『平和の象徴』としての観音像：山崎良順による平和観音像の寄贈活動」, 『仏教文化学会紀要』 25号, 2016.

55 <http://washimo-web.jp/Trip/Syouwaji/syouwaji.htm> 참조(최종 검색일: 2017. 11. 5).

【부록】흥아관음 관련 연표

시기	주요 사항	비고
1940. 2. 24	흥아관음 개안법요 거행	도사는 조조지(増上寺) 관주(貫主) 오시마 뎃스이(大島徹水)
1940. 5. 무렵	아이치현(愛知県) 헤키카이군(碧海郡) 간논지(觀音寺)에서 '흥아관음' 개안법 요 거행	아타미의 흥아관음에 촉발된 것임. 이 하 다른 지역의 '흥아관음'도 마찬가지로 지 맥락에서 파악됨
1940. 무렵	마쓰이 이와네, 흥아관음 유지를 위해 이타미 닌레이(伊丹忍礼)를 초빙함	이타미 닌레이는 법화종 승려
1941. 6. 25	마쓰이 이와네, 왕징웨이(汪兆銘)에게 8촌 높이의 흥아관음상을 증정	
1941. 8. 11	오와세(尾鷲)시 곤고지(金剛寺)에서 흥 아관음 제막식이 거행됨	난징국민정부 주일대사 추민이(褚民 誼), '원친평등(怨親平等)' 운운의 휘호 를 남김
1941	나고야(名古屋)시와 난징(南京)시, '흥아 관음'을 교환함	나고야시에서 보낸 '흥아관음'은 문화 대혁명 때 소실. 난징시에서 보낸 '흥 아관음'은 나고야 평화공원의 평화당 에 안치되어 있음
1942. 5. 3	뉴젠(入善)정 요소지(養照寺)에서 흥아 관음 개안공양이 거행됨	추민이, '원친평등' 운운의 휘호를 석 비에 남김. 석비의 비문은 기구치 간 (菊池寛)이 작성. 도사는 오타니 에이 준(大谷瑩潤)
1942	흥아관음 봉찬회 설립	총재는 마쓰이 이와네, 회장은 히구치 슈지(樋口修次) 아타미 시장
1943. 3. 27	사쿠라이(桜井)시 렌다이지(蓮台寺)에 서 흥아관음 개안법요가 거행됨	마쓰이 이와네, 발원자로서 참석
1943. 10. 26	상해 옥불사(玉佛寺)에 증정하는 흥아 관음의 공승법요가 개최됨	시바(芝) 조조지(増上寺)에서 개최
1943	태국의 뿔랙 피분송크람(Plaek Phibun- songkhram) 수상에게 흥아관음이 증 정됨	
1944	로쿄쿠(浪曲) '흥아관음' 제작, 보급됨	
1944	흥아관음 경내에 '大東亞戰爭戰歿將 士英靈菩提' 건립	
1946. 3. 5	마쓰이 이와네, 스가모(巣鴨) 구치소로 향하기에 앞서 흥아관음의 유지를 이 타미 닌레이에게 부탁함	
1948. 12. 23	A급 전범 7인, 스가모 구치소에서 처 형됨	
1948. 12. 26	산모지 쇼헤이(三文字正平)·히다 비젠 (飛田美善)·이치카와 이유히(市川伊雄), A 급 전범 7인의 유골을 수습함	유골은 산모지 쇼스케(三文字正輔, 산모 지 쇼헤이의 조카)의 것으로 위장하여 고 젠지(興禅寺, 주지는 이치카와 이유히)에 안치
1949. 5. 3	A급 전범 7인의 유족 등, 흥아관음 측 에 유골 안치를 의뢰함	

【부록】흥아관음 관련 연표(계속)

시기	주요 사항	비고
1950. 12. 23	윌튼 해리스 워커(Walton Harris Walker) 중장, 한국전쟁 중 사고사	이듬해 흥아관음에서 공양. 원친평등 정신과 더불어 원령의 저주 강조됨
1952. 10	세계연방 아시아회의의 초청으로 라다비노드 팔(Radhabinod Pal) 박사가 일본을 방문	팔은 도쿄재판 판사 역임. 전범에 대한 기소가 '사후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 일본 측의 무죄를 역설함
1955. 4. 30	예배산흥아관음, 종교법인으로 정식 인가	
1959. 4. 19	'칠사지비'(七士之碑) 건립	흥아관음 봉찬회장 다카기 리쿠로(高木陸郎)의 발기, 요시다 시게루의 휘호
1959	'大東亞戰殉国刑死一〇六八'靈位供養碑' 건립	
1960. 8. 16	순국칠사묘(殉国七士廟)에 A급 전범 7인의 유골을 분사함	이후 순국칠사묘는 산모지 쇼헤이(三文字正平) 등이 관리함
1971. 12. 12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 '칠사지비'를 폭파함	
1977. 7	육사 58기 유지, 흥아관음에서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郎) 위령제를 개최	
1980. 7. 27	육사 58기 유지, 흥아관음을 방문하여 이타가키 다다시(板垣正)의 참의원 의원 당선을 보고함	
1985. 9. 15	이타미 닌레이(伊丹忍礼) 서거	
1989 무렵	고봉회(孤峯会) 결성, 흥아관음을 지원	
1990. 11. 23	묘신(妙真) 서거	묘신은 이타미 닌레이의 부인. 이후 흥아관음은 세 명의 딸[묘토쿠(妙徳), 묘코(妙琏), 묘조(妙淨)]에 의해 유지됨
1993. 5. 18	흥아관음 예제 거행 후의 간담회에서 흥아관음 봉찬회 책임임원 오야 히로시(大屋浩)가 참가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	
1993. 9. 10	해행사에서 '흥아관음을 생각하는 모임' 개최됨	육사 58기의 주도
1994. 9. 12	'흥아관음을 지키는 모임'(이하 '지키는 모임') 발기인 대회	구단(九段) 회관
1994. 11. 18	'지키는 모임' 창립총회	회장은 다나카 마사아키(田中正明), 다나카는 마쓰이 이와네의 비서 출신
1995. 11. 18	'지키는 모임' 창립 1주년 모임	입정교성회(立正佼成会)의 신자가 참가함
1996. 5. 12	야스쿠니 신사 공사 등, 흥아관음에 참배	
1997. 11. 20	'지키는 모임', 교토(京都) 호국신사(護国神社) 경내에 팔 박사의 현창비를 세움	자금동원은 동대경제간담회[(同台經濟懇談会), 회장·세지마 류조(瀬島龍三)]가 중심
2000. 6. 22	야스쿠니 신사 송경봉찬회, '지키는 모임'에 '영령현창사업조성금' 50만 엔을 교부	

【부록】흥아관음 관련 연표(계속)

시기	주요 사항	비고
2003	이타가키 다다시(板垣正), '지키는 모임' 회장 취임	2대 회장
2003	'백인참수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발족	주임 변호사는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2004. 11. 18	'지키는 모임' 창립 10주년 모임	구단회관
2005. 6. 25	야스쿠니신사 경내에 팔 박사 현창비 건립	
2005. 7. 22	재단법인 대동아전쟁전전물자위령단체협의회(위령협) 발족	'지키는 모임', 협찬단체로 가입함
2005. 8. 10	위령협 주최 '중전60주년기념전전물자합동위령제'가 야스쿠니신사에서 개최	'지키는 모임' 임원, 회원 10명이 참가함
2006	나카무라 아키라(中村稔), '지키는 모임' 회장 취임	3대 회장
2006	'지키는 모임' 회원 모기 히로미치(茂木弘道), '사실(史実)을 세계에 발신하는 모임'을 결성	
2006. 6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의 『이른바 A급 전범』(いわゆるA級戦犯, 幻冬社) 발간	흥아관음 언급
2006. 6. 11	채널 사쿠라의 후지이 겐키(藤井厳喜), 흥아관음을 취재	
2006. 6. 28	'지키는 모임' 회원 마쓰오 이치로(松尾一郎), SAPIO에 흥아관음 관련 기사를 게재함	마쓰오는 '전뇌(電脳) 일본의 역사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음
2006. 8. 14	TAIPEI TIMES에 흥아관음 관련 기사 게재	AFP 통신의 기사를 공유
2006. 8. 16	JAPAN TIMES에 흥아관음 관련 기사 게재	
2008. 1. 25	영화 <난징의 진실> 시사회. 이후 야스쿠니 신사 등에서 상영	영화에서 흥아관음은 약 3분가량 노출됨
2008	흥아관음봉찬회 활동 재개. 회장은 우치다 미노루(内田実)	
2008. 11. 20	세계연방 일본불교도협의회, 흥아관음에서 순국철사 제1회 위령법요를 개최	
2009	나카무라 아키라(中村稔), '지키는 모임' 회장 취임	4대 회장
2009. 9. 1	이타미 모조(伊丹妙浄)·구로이와 도루(黒岩徹), 나카무라 아키라 '지키는 모임' 회장에게 절연장을 발송함	
2009. 11. 11	세계연방 일본불교도협의회, 흥아관음에서 순국철사 제2회 위령법요를 개최	

【부록】흥아관음 관련 연표(계속)

시기	주요 사항	비고
2010. 4. 1	TELEGRAPH에 흥아관음 관련 기사 게재	
2010. 10. 3	세계연방 일본불교도협의회, 흥아관음에서 순국칠사 제3회 위령법요를 개최	
2011. 12. 23	흥아관음봉찬회 회원이자 ‘일본회의’ 나카노지부장인 우치노 게이치로(内野 絳一郎), 야스쿠니신사에서 ‘원친평등 순국기 위령제’를 개최함	
2012. 11. 8	세계연방 일본불교도협의회, 흥아관음에서 순국칠사 제4회 위령법요를 개최	
2013. 12. 8	세계연방 일본불교도협의회, 흥아관음에서 순국칠사 제5회 위령법요를 개최	
2017. 5. 18	‘재생일본21’, 엔가쿠지(円覚寺)·흥아관음 위령법요 투어를 실시	

근거 자료: 三正一, 「殉国七士碑(熱海)の御前に板垣君, 感激の参院当選報告」, 『偕行』 357号, 1980; 『興亜観音』 創刊号~32号, 1995~2010; 『靖國』 491号, 1996; 福留佳子, 「殉国七士廟」と三文字弁護士: 東京裁判で刑死された七士をお祀りして, 『祖国と青年』 307号, 2004; 山田雄司, 「松井石根と興亜観音」, 『三重大史学』 9号, 2009; 伊丹妙浄, 『興亜観音とわたくし』, 興亜観音, 2011; 이세연, 『사무라이의 정신세계와 불교: 일본사회의 전사자공양과 怨親平等』, 해안, 2014, 제5장; 종교법인 예배산흥아관음 홈페이지(<http://www.koakannon.org/>); ‘일본회의’ 도쿄도 나카노(中野) 지부 홈페이지(<http://www.nipponkaigi.jp/>); ‘재생일본21’ 홈페이지(<http://www.saisei21.jp/>); 전쟁과 평화의 자료관 평화 아이치 홈페이지(http://www.peace-aichi.com/piace_aichi/201107/vol_20-7.html).